

# BTS 공연 앞두고 숙박업소 점검 서울시, 광화문 일대 18곳 적발

요금표·신고증 미게시 업소 적발  
공연일까지 집중 점검·수사 지속  
불법 영업·요금 위반 제보 접수  
관광객 피해 막기위한 관리 강화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업소 점검에 나선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숙박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시는 공연 당일까지도 점검과 제보를 병행하며 집중 관리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하나 18개 업소는 영업신고증 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실제 점검에서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한 숙박업소가 숙박요금표와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다른 업소는 개업 이후 적발 당시까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18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적발업소는 최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숙박 요금표 미게시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숙박업소의 관할 기관인 종로·중구에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영업장 폐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 숙박업소 요금표 미게시, 게시요금 미준수 등을 시민제보 받고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중요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BTS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피로나 불편을 겪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공연 당일 까지 숙박시설 등 강도 높은 불법영업 점검과 수사를 계속해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BTS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피로나 불편을 겪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공연 당일 까지 숙박시설 등 강도 높은 불법영업 점검과 수사를 계속해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BTS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피로나 불편을 겪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공연 당일 까지 숙박시설 등 강도 높은 불법영업 점검과 수사를 계속해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교육청, 45년만에 용산 신청사 이전

종로 청사 떠나 이달 순차 이전  
노후 청사 대체, 행정체계 전환

서울시교육청이 45년간 사용해 온 종로 청사를 떠나 용산 신청사로 이전한다. 노후화된 기존 청사를 대체하는 동시에 교육행정 체계를 미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종로구 현청사에서 용산구 소재 신청사로 이전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사는 기존 청사가 1981년 입주 이후 장기간 사용되면서 제기된 노후화와 공간 협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청은 2017년 청사 이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2022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25년 12월 준공했다.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시설을 넘어 교육정책 기획과 학교 지원, 시민 소통 기능을 강화한 종합 교육행정 플랫폼을 목표로 조성됐다.

저층부에는 민원실과 라운지, 교육정책 홍보·전시 공간을 배치해 학생과 시민이 방문 즉시 서울교육 정책과 신청사 운영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중·상층부에는 본청 실과 회의·협업 공간을 집적화해 기존 부서 분산 구조에서 벗

어나 교육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현재 신청사는 스마트오피스 조성과 입주 청소 등 마무리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청은 3월 첫째 주 서울시의회와 인근 학교 학생, 시민참여단, 출입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신청사를 사전 공개하는 오픈하우스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 이전은 13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신학기 교육 현장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교육청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민원실은 교육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에 이전한다. 이사 당일에는 각 부서 민원을 서울교육 콜센터 '1396'을 통해 응대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신청사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서울교육 행정 운영체계를 미래형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70년 역사 서울교육이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정책은 더 빠르게, 지원은 더 촘촘하게, 소통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파주, 11일 '독서국가' 선포식 개최

출판도시 지혜의숲서 독서 비전 선포  
AI 시대 맞춤형 독서교육 전환 동참

파주시가 11일 15시 파주출판도시 지혜의숲 대회의실에서 '파주시 독서국가 선포식'을 개최하고 책 읽는 도시를 넘어 '독서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힘찬 출발을 알린다.

이번 선포식은 지난 1월 국회의원관에서 열린 '독서국가 선포식 및 독서국가 추진위원회 출범식'의 취지에 발맞춰, 인공지능 시대 대응 독서교육의 국가적 전환 움직임에 동참하고, 책과 도시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서관·교육·출판·서점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독서국가 선언문 발표 ▲대형 붓글씨 시연 ▲문단계의 아이돌이자 국회 독서국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준 작가의 '읽는 하루'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독서 문화 확산 정책을 더욱 체계화해 시민 일상 속에 책 읽는 문화를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파주시도서관 누리집 또는 홍보물 내 QR코드를 이용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중앙도서관으로 전화하면 된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서연고 41개 학과서 신입생 61명 미충원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 증원에 상위권 자연계 이달  
2025학년도 미충원 6년 새 최대  
서울대·고려대 자연계 결원 뚜렷

2025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미충원이 41개 학과 61명으로 최근 6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5년 전보다 약 3배 증가한 규모로,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영향으로 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이 의학계열로 이동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8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연고 신입생 미충원 학과 수는 2020학년도 14개에서 ▲2021학년도 14개 ▲2022학년도 24개 ▲2023학년도 20개 ▲2024학년도 30개 ▲2025학년도 41개로 증가했다. 미충원 인원 역시 2020학년도 21명에서 ▲2021학년도 21명 ▲2022학년도 30명 ▲2023학년도 24명 ▲2024학년도 42명 ▲2025학년도 61명으로 늘며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6학년도 신입생 미충원 현황은 대학

(SKY대 신입생 미충원 인원) /종로학원

대학명	계열	2023	2024	2025
서울대	인문	3	0	2
	자연	0	8	10
	예체능	0	1	1
	계	3	9	13
연세대	인문	9	6	2
	자연	6	12	3
	계	15	18	5
고려대	인문	0	5	14
	자연	6	10	29
	계	6	15	43
전체계	인문	12	22	18
	자연	12	30	42
	예체능	0	1	1
	계	24	42	61

알리미 공시에 따라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는 2025학년도 12개 학과에서 13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최근 6년 동안 가장 많은 규모다. 서울대 미충원은 인문계 2개 학과 2명, 자연계 9개 학과 10명, 예체능 1개 학과 1명으로 자연계 학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는 2025학년도 4개 학과에서 5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전년도 10개 학과 18명보다 줄어든 수치지만, 이는 자연계 논술 추가시험에 따른 정원 초과 선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5학년도 논술 추가시험을 통해 모집정원보다 58명이 추가 선발됐으며, 해당 인원은 2027학년도 자연계 16개 학과에서 정원이 감축될 예정이다.

고려대는 2025학년도 25개 학과에서 43명의 미충원이 발생해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문계열 7개 학과에서 14명, 자연계열 18개 학과에서 29명이 미충원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대 영향으로 서연고 합격생 가운데 상당수가 의학계열로 이동하면서 자연계 학과 중심으로 미충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대와 고려대의 경우 미충원 학과 대부분이 자연계에서 나타난 점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3월 9일 (월)

음력 : 1월 21일

수도권 날씨

1~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6:53 | 해질 / 18:33

지역예보: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한국 야구대표팀, 대만전 연장끝에 4-5 패배  
▲김성현, PGA 푸에르토리코 오픈 3라운드 공동 33위 /사진 뉴시스

▲남자 하키, 칠레에 밀려 월드컵 예선 8위... 무승으로 대회 마무리  
▲여성 서사 전면에... '렘피카' '말벌' '정희' 국내 초연

▲뮤지컬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내달 1일 새 시즌 개막  
▲'노벨문학상' 라슬로 '짐레는 거기에'... 첫 번역은 한국어